

2016, 5, 12 목요일. 맑음

"나도 많이 늙었구나"

오전, 6시 10분 기상.

사과 반쪽, 냉동 떡볶이, 김치, 아침식사.

거실에 자라는 식물들, 아침식사.

강원대비파크 APT 앞에 대형마트 드론

손에 들고 볼 정도만 샀다. 우유, 커피, 음료.

전식은 라면으로 간단히 먹음.

오류에로 나갈 일 없어 요수 먹는 책.

마크 피오렌티노치음. "아들아, 난 부자가

될거야" 라는 7 페이지 넘겼다.

4시 30분경. 밖내사위. 노서방이 와서

말한말 해 놓은 것 (오이피클, 연근피클, 양파김

드라지양념)을 가지고 가면서 신사인랑 (오

만원) 그장을 주었다. 만 주어로 과찬다라

하면서 손으로 돈을 받는 내 모습에

이제 나도 많이 늙었구나 생각했다

저녁은 생고기(쇠고기)로 상추쌈과 함께

와인도 한 잔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.

10시 40분경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

하루를 정리 해 보았다

김정우.